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국민여러분!

저희는 탄광근로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농으로 이야기하는 그 막장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부에서 탄광을 닫겠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노조는 폐광 총파업 찬반투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 길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기분입니다. 빗 때문이라고 합니다. 탄광이 빗이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 속이 겹겹이 답답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탄광근로자들도 생계를 위해 일합니다.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주는 아내를 위해 몸이 아파도 출근을 합니다.

너무 힘이 들면 자식놈들 얼굴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견디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사람이 하루에 8.63톤의 탄을 채입니다.

일하는 곳은 지하 수백 미터 아래 땅속 굴입니다. 굴이 바좁아 무릎을 꿇어야 삼질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열로 한겨울에도 온도가 40도까지 치솟습니다. 소음으로 바로 옆 동료 목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습기까지 높아 한증막과 다름없습니다.

자욱한 탄가루가 섞인 땀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눈을 뜨기도 힘이 듭니다.

자부심이 없다면 하루도 버티기 힘든 일입니다.

국가 산업화를 이끌었다는 자부심입니다.

석유 파동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는 뿌듯함입니다.

팍부들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나라 산업발전 원동력 역할을 했습니다.

한때는 대통령께서도 탄광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저희를 산업전사, 예국자라고 치켜세워 주셨습니다. 산업전사는 저희 자긍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산노동자들이 가족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산업전사는 수많은 선배 얼굴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도이기도 합니다.

선배들 희생이 있어 얻은 칭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탄을 캐다 순직한 선배 광부가 5,000명입니다. 탄에 깔려, 화차에 끼여, 로터에 맞아 순직했습니다. 가스가 폭발해 주검으로 갱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중·경상자도 약 30만 명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선배가 진폐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진폐는 불치병입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산업전사는 이런 희생으로 얻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제 탄광의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 적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적자는 1960~1970년대 정부 중산정책에 적극적으로 부응한 결과입니다. 부족한 석탄을 더 생산하려고 부실 민영탄광들을 인수해야 했습니다. 서민 연료인 연탄 가격 안정을 위해 석탄 가격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공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방만 경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근로자들은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눈물이 납니다.

적자운영 때문에 낮은 임금과 열악한 복지를 감내했습니다.

저희는 공기업 중 임금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분합니다. 아니 허탈합니다.

국민 여러분!

탄을 캐는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탄광이 있어도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석탄공사는 탄 생산에 있어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일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통일 이후 북한에 있는 탄을 그대로 놔둘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 광부들은 모두 토박이입니다. 탄광촌도 탄광이 있어 그나마 굴러갑니다. 탄광이 무너지면 탄광촌도 무너집니다. 고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붕괴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주민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주민도 폐광만은 안 된다고 울부짖는 이유입니다.

국민 여러분!

탄광촌 현실에서 폐광은 지역경제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생존권의 박탈을 뜻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반이 탄광입니다. 폐광은 70여 년간 쌓아온 석탄공사 기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폐광은 남북통일에 대비한 에너지 정책의 공적 임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폐광은 서민 에너지 복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폐광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폐광이 불가피하다면 최소한 저희가 준비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저희도 부모를 부양하고 자식을 교육시켜야 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 여러분!

다신 한 번 간절히 호소합니다. 폐광을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탄광 노동자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약속합니다. 앞으로도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묵묵히 국민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